

文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安 “진상규명 특위 설치”

대선후보 광주·전남 공약 점검 <4> 5·18 민주화운동

37년 간 미완의 진실로 남았던 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발전이 이번 대선에서 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폄하되고 왜곡됐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5·18 정신계승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가보고서 발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5·18 민주화

발포명령자·헬기사격 규명...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구동성’

정의당 심상정, 옛 도청 원형보존·국가보고서 발간

운동의 진실규명과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통해 5월 정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80년 광주학살의 발포 명령자를 밝히고, 국가 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중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의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법 개정을 통해 80년 5·18 당시 발포명령자 및 헬기 기총사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규명과 5·18 정신 훼손 시도도 엄벌하겠다고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 당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등도 약속했다.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자료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과 5·18 유적지 보존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인권도시 광주에 세계 인권교육 기관, 민주주의 역사 기념 시설 등을 갖춘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건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립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주요 사업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규명, 압매장 발굴 조사활동 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 국가 공식 5·18 진상규명 백서도 편찬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미공개된 군 기록

물 공개 의무화 및 관련 기록물 폐기 방지를 위한 ‘5·18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최종적으로 5·18 국가 공인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을 내놓았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국가 기관 승격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아울러 해외 5·18 기록물 수집과 군 기록물 등 미공개 및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을 포함한 8만여 건에 달하는 5·18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와 통합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특위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추진계획으로 제시했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며, 소요 예산은 80억원으로 예상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은 공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9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기념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광주 月 출생아수 첫 900명대 곤두박질

2월 인구동향 1월比 100명 감소...전국 3만600명 ‘역대 최저’

2월 전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광주지역은 한 달 출생아가 처음 900명대로 떨어져 인구 절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였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해 2월 3만4900명이었다.

아직 올해 두 달 집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2월 출생아가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줄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1월 1000명에서 2월 처음 900명으로 떨어졌다.

전남은 1월 1100명대에서 1000명대로 감소했다.

올해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7만4400명)보다 8800명 줄었다. 나머지 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출생아 수가 현재처럼 작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출생아 수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며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이 10%대를 유지하느냐, 한 자릿수로 줄어드느냐에 따라 올해 출생아 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남뉴스



대선 후보들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광주·전남 시민사회·재야·종교단체 소속 회원들이 26일 광주시 동구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제19대 대선 광주·전남 시민사회·재야·종교단체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선 주자들의 색깔론과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 강력 비판한 뒤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승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文·安, 광주·전남 경제계 건의 대선공약 반영

문화전당 특별법 연장·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전남 경제단체들이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한 지역 주요 사업 일부가 공약에 반영됐다.

26일 광주상공회의소와 목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회는 최근 광주 경제단체들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도시 조성,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빅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국립자동차박물관 건립, 무등산 Geo(지질) 테마파크 조성,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건축도시 융복합연구센터 건립 등을 더하여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에게 각각 건의했다.

목포상의회 전남 경제단체들과 함께 해양수산 융복합단지 조성,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조성, 해경 제2정비장 유지, 여수 경도 복합해양관광 중심도시 육성,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초경량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을 두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이 가운데 문 후보는 광주 경제단체들의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연장 등 사업 정상화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남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사업과 관련해 해경 제2정비장 유지,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조성, 해양수산 융복합단지 조성, 여수 경도 복합해양 관광 중심도시 육성 등을 공약했다.

또 안 후보는 광주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사업과 관련해 미래 건축도시 융복합연구센터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연장,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전남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조성, 해양수산 융복합단지 조성, 초경량 소재·부품 클러스터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회와 목포상의회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된 광주·전남 경제현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는 것은 물론, 빠진 사업은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드 불똥’ 中 정율성 음악제 7월 이후로 연기

무기한 연기 배제 못해

오는 6월 중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율성 음악제가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문화재단은 26일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측 사정으로 오는 6월 성도(成都)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율성 음악제’가 7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한반도 배치로 빚어진 한·중 외교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중국 측과 행사 절차와 일정 등을 조율해왔다. 정율성 음악제는 광주시가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정율성 음악축제의 핵심공연이다. 정 선생의 작품을

한·중 예술단이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율성 선생을 가오삼아 중국과 문화교류 행사에 공을 들여왔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 선생은 항일운동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다.

문제는 중국측이 7월 이후에 행사를 열기로 오는 6월 성도(成都)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율성 음악제’가 7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한반도 배치로 빚어진 한·중 외교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중국 측과 행사 절차와 일정 등을 조율해왔다. 정율성 음악제는 광주시가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정율성 음악축제의 핵심공연이다. 정 선생의 작품을

/윤영기자 penfoot@

‘국민의당 광주·전남 공약’ 1면서 계속

기존 5대 공약은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육성’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UN 조달물류기지 광양항 유치’ ‘무안 국제공항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등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스마트시티 조성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중심 미래 이동수단

산업특구 조성 ▲공중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농수산 품종개발 보급기지 조성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서해 항공어항 프로젝트 ▲전통 남도문예지역의 신한류문화 육성 ▲통합 물관리를 통한 쾌적한 영산강·섬진강 만들기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경전선 연계 남해안철도 고속전철화 ▲서남해안 간선도로 국도 승격 및 연륙·연도교 연계 교통망 구축 등도 공약으로 추가했다.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시: 2017. 5. 9(화) 오후7시
- 장소: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시: 2017. 5.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사주+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임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차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기든식당 전할)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주택

-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억원
-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면 대770㎡ 매23억원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3,070㎡ 매1.3억원
-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 매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문의 010-2572-4663